

第 69 回

11月11日, 成功



- ... 우리協會는 지난 11月 ...○
- ... 11日協會研究室에서 第69 ...○
- ...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. ...○
- ...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...○
- ...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...○
- ... 이달에도 2백여명이 參席하 ...○
- ... 여 盛況을 이루었다. 이날 ...○
- ... 發明教室에서는 재일테크롤 ...○

콘베이어의 로울러장치 發明人

재일테크롤(株) 朴洸熙 사장

콘베이어의 로울러장치를 發明한 재일테크롤(주) 朴洸熙 사장은 충남 아산군에 회사를 설립한 이래 '88年 6月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꾸준한 발전을 보여왔다.

현재, 국내 시장에서 연간 1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재일테크롤(주)는 이제 명실공히 중견기업으로서 그 기틀을 다져가고있다.

엔지니어 출신의 朴사장은 콘베이어의 로울러장치 發明동기를 이렇게 밝혔다.

『산업현장에서 직접 뛰다보니 강철재 로울러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.

그래서 보다 값싸고 사후 관리가 용이하며, 산업재해 예방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제품을 구상하던 중 개발에 착수하게 됐지요.』

처음, 朴사장이 콘베이어의 로울러장치를 發明할 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무척 고생했다.

그러나, 한국발명특허협회에서 시작품 지원금을 보조받아 실제 현장위주로 광산·화학회사 등 현장에 적용시켜 실험과 연구를 병행하며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던 중 콘베이어의 로울러장치를 완성하게됐다.

그후 朴사장은 '88年 12月 온양 신축공장을 준공했으며, '89年 4月에 강남구 논현동에 서울 지점을 개설하였다.

또한, '85 全國優秀發明品展

示會와 '89機械展示會에서 전시를 했으며, 국내에서 연간 1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등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다.

朴사장이 發明한 하이테크 아이블러 로울러는 기존의 제품에 비해 신축성이 뛰어나며, 유연한 상태로 회전하여 벨트를 자연스런 상태로 고르게 받쳐줌으로 진동없이 이송물을 운반할 수 있고, 절연체이므로 누전 등으로 인한 인제 및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.

朴사장은 자신의 發明기법을 이렇게 강조했다.

『고정 관념에서 벗어납시다.』

내년도 상반기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을거라며, 朴사장은 실로 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. <♣>